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Gabriel Kim 김가브리엘(명석) (510) 562-3843 사무실 Tel (510) 553-9434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이시몬(인악) (408) 234-5037 Fax (510) 639-4842
 piccpeter@gmail.com standrewoak@gmail.com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환자봉성체	매월 첫 금요일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대건회관)		흔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미사 후(대건회관)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 회의실)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50			



[제 1독서] 요나 3, 1-5. 10
 [화답송] 시편 25(24), 4-5, 7, 6과 7, 4, 8-9(◎ 4)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소서.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
-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어지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한 이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한 이 당신 길 알게 하신다.◎

[제 2독서] 1코린 7, 29-31
 [복음 환호송] 마르 1, 15

◎ 알렐루야.
 ○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 마르 1, 14-20

성가	8시 미사	입당 329	봉헌 210 211	성체 159 182	파견 39
	11시 미사	입당 329	봉헌 210 211	성체 159 182	파견 39

주일 전례 봉사

구분	연중 제 3주일(1월 25일)		연중 제 4주일(2월 1일)		연중 제 5주일(2월 8일)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김휘안토니오	4구역:권창모미카엘	채성일토마스	1구역:황혜정데레사	임승원루카	2구역:조선덕레지나
제 1 독서	채성일토마스	4구역:허순구라우렌시오	강신희요한	1구역:이창용레이몬드	최환준베네딕토	2구역:최환준베네딕토
제 2 독서	정애리스텔라	4구역:허옥진파비올라	김영선안젤라	1구역:이경란베로니카	최수영베네딕타	2구역:손정옥리디아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나를 따라 오너라

어디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까? 예수님께서서는 베들레헴 마구간에 갓난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곳에서 저희가 예수님을 따르라고요?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비우면서 가난한 삶을 살란 말입니까?

요즘 세상에 가난하면 어쩌란 말입니까? 예수님은 나자렛에서 30년 동안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냥 사셨습니다. 그곳에서 저희가 예수님을 따르라고요?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 옆에 있는 이 못난 사람들 사이에서 묵묵히 살아가라고요? 그곳에서 하느님의 신비를 발견하면서 하느님과 함께 사는 진리를 익히라고요?

예수님은 갈릴래아 호숫가에서 3년 동안 복음 선포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묵인 이들을 풀어주시고, 눈먼 이들을 보게 하시면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머리 돌 곳조차 없이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힘차게 사랑을 실천하고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라고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도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 다 되었다고 하지만, 저희가 살아가는 사회는 천박하기 짝이 없는 삶을 살도록 강요하는 상업주의 사회의 첨단을 달립니다. 더 많이 소비하도록 강요당하면서 모두들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이 사회 한가운데서 생생한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하라고요? 예수님께서서는 골고타 언덕에 십자가를 힘겹게 지고 오르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숨을 거두십니다.

그곳에서 하느님과 인간은 완전히 결합하였고, 그곳에서 힘없이 늘어진 채 벌린 두 팔로 온 세상 사람들을 모아서 성부께 바치십니다.

여기서 저희는 “주님의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머리를 조아리며 기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편안함을 추구하고, 작은 일에도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난리를 치면서 살아가는 저희더러, 수난의 길을 거쳐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사형수로 인생을 마감하는 예수님을 따르라고요?

저희가 그렇게 인간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생명을 바치는 이 완전한 사랑을 닮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감히 이런 하느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위대한 존재로 저희를 이 세상에 초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저희도 그 부활과 승천을 뒤따르라고 하십니까? 저희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부활하고 하느님 옆에 오르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 삶이 세례로써 저희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다고요? 그래도 “나를 따르라” 고 하시니, 저희가 예수님을 뒤따를 수 있도록 항상 성령을 보내주시십시오.

주수옥신부
서울대학교구 대방동본당주임



그대는 모든 음식에 소금이 되려고 기를 씁니다.
그러나 그대는 소금이 될 자질이 부족합니다.
그대는 소금처럼 녹아서 눈에 띄지 않게
사라질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글_성 호세마리아 에스끄리바 / 그림_구민정 엘리사벳

팽팽한 연줄

생명의 말씀

연을 날린다. 겨울의 들판은 연을 날리기에 제격이다. 찬바람을 가르며 하늘로 솟구치는 연을 올려다보면 그 시원함에 뒷목이 뻗뻗해지는 것도 잊는다.

하늘이 높다기보다 깊다는 말이 더 어울리는 때다. 주일 학교 아이들과 십여 년 전에 연을 날려보고는 참으로 오랜만의 일이다. 이 넓은 들판에서 홀로 연을 날리는 것도 쓸쓸한 매력으로 다가온다. 연을 높이 날리기 위해선 바람도 있어야 하지만 꼭 필요한 것이 줄이다.

바람이 아무리 잘 불어줘도 줄이 끊어진 연은 멋대로 날다가 이내 땅바닥에 뒹굴게 된다. 바람의 저항에 연줄이 팽팽해지면 연은 더 높이 올라간다. 왜 이런 당연한 이치가 이 겨울 들녘의 한복판에서 새삼스러워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마르 1, 17)하시며 제자들을 부르신다. 이 부르심에 제자들은 어쩔 그리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따라나섰을까?

저 깊은 하늘로 빨려 올라간 연처럼, 굳더더기 없는 모습이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동안 의지해 왔던 삶의 모두(그물, 아버지...)를 내려놓고 한 방에 낚인다. 한 방에 낚이는 결정적인 행위는 ‘내려놓음’이다. 이 내려놓는다는 것에 믿음이 담겨 있다. 이 믿음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어주는 연줄이다.

내려놓아야 할 것 앞에 오늘도 갈등하며 살아간다. 갈등하는 많은 것 중에 ‘더’를 어디에 붙일 것인가가 관건이다.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 것 같은 ‘조금’에 ‘더’를 붙여 이미 많이 가졌는데도 ‘조금만 더’ 하며 그간의 것들을 스스로 작아 보이게 만든다. 이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오늘도 예수님은 그 누구도 아닌 나를 향해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며 부르신다. “어떻게 할까, 왜 나만 내려놓아야 하나!?” 갈등의 연속이지만, 연이 바람의 저항을 타고 높이 오르듯이 우리의 내적인 갈등 역시 당신께 오르

는 데 있어 필요조건의 저항이라 생각된다.

한 방에 낚였던 제자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깊은 하늘로 빨려 들어가는 연처럼, 당신의 품으로 한 방에 빨려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서도 갈등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다행인 것은 갈등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안다는 것이다. 이제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당신께 맡겨드리면 풀릴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하다.

연줄이 팽팽해지면 연은 더 높이 치솟는다. 다시금 당신과 나 사이의 느슨한 줄을 ‘내려놓음’을 통해 팽팽히 당겨본다.

유승경 이사악 신부
인천교구 바다의별 노인요양원

말씀의 향기

하느님의 계산법

지난날을 돌아보면 아득합니다. 저 벌판을 어떻게 살아왔을까. 저 돌밭을 무슨 힘으로 걸어냈을까. 저 자신도 어리둥절합니다. 뭘 하나 똑똑히 할 줄을 모릅니다. 사실입니다. 특히 계산법이 아주 엉터리입니다.

한국이나 외국에서도 나머지 계산을 잘 알지 못해 큰돈을 주고 거스름돈을 주는 대로 받아서 주머니에 넣습니다.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영수증도 받지 않고 덜컥 돈을 주고는 낭패를 보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삶의 기본 자격을 상실한 거지요.

자식들 보기에 영 얼굴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저를 황당하게 일 저지르는 어린아이처럼 대할 때도 있습니다. 나이 때문도 있겠지만 물러터진 감성이며, 아무지 못한 성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창피하기도 하고 미안한 것이 참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나이까지 그래도 이만큼 살아낸 것이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아니 기적입니다.

돈계산은 두고라도 정리정돈이며 미루는 습관이며, 어디 총명한 곳이 하나 없는 제가 이렇게 살아왔고 살아가는 저를 보면, 때로는 내가 나를 두고 참 이상하고 야릇하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 어떻게 살아왔을까. 이런 대면대면한 몰골로 살아왔는지 두 손을 모으고 생각해 봅니다. 하는 꼴을 보면 저도 저에게 조마조마합니다. 아이고 맙소사! 얼굴을 가리고 황당한 저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왔을까. 분명 확실하게 느껴지는 힘이 있습니다. 스스로 나 자신을 보면 하느님의 사랑이 증명됩니다.

그분이 계셨던 겁니다. 10만원만 넘어가도 계산을 제대로 못해 일 십 백 천 만!하고 세어봐야 겨우 아는 계산법으로, 그것도 많아지면 읽지도 못하는 계산법으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결혼시키고 늦은 공부를 하며 대학교수가 되고, 생활인으로 살았다는 것은 뒤에서나 앞에서 하느님이 일으켜 세우며 결핍을 채워 주시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가족들이 힘들었겠지요. 그만큼 주변 사람들이 힘들었겠지요. 저의 불편만 생각했지만, 제가 비틀거릴 때 사실은 가까운 사람들의 고충이 크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하느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압니다. 하느님이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계신다는 증명이지요.

기적은 거대한 것이 아니라 소소한 일상생활 속에도 눈부시게 나타납니다. 보십시오. 작지만 자유로운 내 공간의 잠자리가 있고, 두 발로 걸어 다니고, 아직도 친구들을 만나 행복하게 웃고 있다는 것은 보통 은총이 아니라는 것을 절감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표현법에도 저는 부족합니다. 제 일생 감사의 표현을 하려면 저 아프리카에 있는 천 명의 아이라도 살려내야 하지만, 제 감사는 아직도 인색하기 그지없습니다.

새해엔 영혼이 철들어 감사 표현에 능하면 좋겠습니다. 생색내지 않으시고 조용히 도와주시는 하느님의 계산법처럼 말입니다. 아멘.

신달자 엘리사벳
시인

성경산책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요나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을 읽어보세요. 오늘 제1독서에 등장하는 ‘요나’ 하면 물고기 뱃속에 있는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하느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큰 성읍 니네베로 가서, 죄악으로부터 회개할 것을 외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부르심을 따르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출항량을 칩니다.

요나는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그들에게 그렇게 말한다면 그들이 날 죽이려 할 거야.” 요나는 배를 타고 도망치다가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장이 배밑바닥에 내려가 보니, 요나는 쿨쿨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계속 풍랑이 멈추지 않자, 누구 때문인지 알아보려 제비뽑기를 했는데 요나가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요나를 다그칩니다. “넌 도대체 어디서 왔으며,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런 참변을 가져왔느냐?” 요나는 그동안의 일을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 풍랑이 요나의 탓이라며 그를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잃었던 요나가 눈을 떠보니 그곳은 큰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 속에 있으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드디어 하느님께서 요나를 사흘이 지난 후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요나는 니네베로 가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니네베는 잿더미로 변한다!” 요나는 도시를 돌아다니며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요나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 모두 붉은 베옷을 입고 단식에 들어가서 멸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느님께 불평을 하면서 화를 냅니다. 요나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화를 내는 요나를 하느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궁금하신가요?

허영업 마티아 신부
서울 대교구

♥ 괄호 속을 채워 보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수고하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았으며,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 버린 이 ()을 그토록 동정하는구나! 그런데 하물며 오른쪽과 왼쪽을 가릴 줄도 모르는 ()이 십이만 명이나 있고, 또 수많은 ()이 있는 이 커다란 성읍 니네베를 내가 어찌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요나 4,10-11)

♥ 아래의 성경을 찾아 읽고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노트에 써 보세요.

요나 3,10; 4,1-11, 요나 1,1-2,11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라이벨리 안인선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날짜		지향	봉헌자
1월25일 일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이케네스(상열)	가족
	연	임그레고리오(재선)	임레지나
	연	조바오로(병철)	가족
	연	서데레사(귀분)기일	성루카/우솔라
	연	송소피아(성은)	안마리아(은순)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생	김안젤라(영선)	하늘의문 Pr.
	생	리아네스(명란)	은총의어머니 Pr.
	생	원안젤라(은규)	부모
	생	원젬마/원안젤라	원프란치스코
1월27일 화	연	최베드로(휘종)	가족
1월28일 수	생	채토마스 축일	채헬렌
1월29일 목	연	배안토니오(용주)	김아네스(혜숙)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주일학교	합계
미사참석인원	80	202	-	282
헌 금	\$574	\$1,087	-	\$1,661

< 교무금 > \$1,725

김영균(1) 허순구(1-2) 정일양(1) 유춘성(1)
 유경돈(1) 강수영(1) 정창희(1) 유혜선(1)
 김근원(1) 한서연(1-2) 황문환(1) 김승희(1-2)
 김범식(1-6) 김영민(1)

< 성소후원금 > \$20

김영균(1) 정창희(1)

< Bishop's Appeal > \$20

김영균(1) 김영민(1)

< 감사헌금 > -

< 초 봉헌 >

김영희 \$50

< 2차 헌금 > \$686

~~~~ 오늘 간식은 소명환 베드로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

- 공 지 사 양 -

◆ 주님봉헌축일(2월 2일)을 맞아 초축복 예식을 2월 1일 교중미사 중에 거행합니다.

1년 동안 전례에 사용될 초와 전례용품을 봉헌하게 됩니다. 개인 기도초도 함께 축복해 드립니다.

\* 감실초/제대초 봉헌을 사무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 2014년 총결산 내용이 친교실 게시판에 붙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재정위원회나 사무실로 문의해 주십시오.

◆ 예비자 입교식

일시 : 2월 8일 교중미사 중

신청 : 사무실

\* 예비자 인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 모임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호실

\* 기체조 : 매주 교중미사 후 대건회관 1회의실

\* 대건산악회 : 12월, 1월 단체산행은 없습니다.

\* 구역반장회의 : 오늘 교중미사 후 106호실

\* 사목회의 : 2월 1일(다음주) 교중미사 후 106호실

◆ 본당 ME 모임

1월 25일(오늘) 교중미사 후 107호실

\* 대표부부 선출이 있으니 꼭 참석해 주십시오.

◆ 창세기 성서모임 봉사자 모임

1월 27일(화) 저녁 미사 후 교육관 106호실

◆ 유럽성지순례 모집

일시 : 4월 19일(일)~ 5월 1일(금) 12박 13일

지역 : 이스탄불, 아시시, 로마, 크로아티아,

메주고리에

순례비용 : \$3,401(기사/가이드의 팁, 순례 중 물, 식당에서의 물 포함)

예약금 : \$1,501(Check 또는 Money Order)

신청마감 : 1월 25일(일) 30명 선착순

연락처 : 이 레이몬드 510-688-0157

◆ 은총의 어머니, 자비로우신 모후, 하늘의 문 Pr. 에서 2014년 꾸리아 연차친목회에서 받은 상금 \$50을 Brown Bag 봉사에 도네이션해 주셨습니다.

**1월 반모임 안내**

| 구역 | 반          | 시간         | 장소              |
|----|------------|------------|-----------------|
| 2  | 프리온/S반     | 1월25일(일)6시 | 유인웅다윗덕          |
|    | 유니온반       | 1월25일(일)6시 | 이규주시몬덕          |
|    | 캐스트로벨라E/W반 | 1월31일(토)6시 | 허은희마리아덕         |
| 3  | 알버니B반      | 1월31일(토)6시 | UC Village Room |

◆ 성당 마스터 키를 반납하실 분은 사무실로 반납해 주십시오.

◆ 헤어컷 봉사자께서 도네이션 받으신 \$100을 트라이 벨리 성당 성전기금에 봉헌해 주셨습니다.

◆ 성탄 때 봉헌하신 성경쓰기노트를 사무실에 오셔서 상품과 함께 찾아가십시오.

◆ 세금보고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신청해 주십시오.

◆◆◆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 안젤라(1/27) : 한계순, 임승주, 김영선, 이영희, 양학회

\* 토마스아퀴나스(1/28) : 홍승천, 채성일, 설승진

\* 마르티나(말지나, 1/30) : 구영희, 황정숙

\* 요한보스코(1/31) : 김관수

**주일학교 소식**

- 오늘 Sunday School 개학

- 영어미사 오후 12시 30분